

북구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

133억4000만 원 투입...내년 5월까지 완공

북구는 오는 30일 오후 옛 경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착공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운암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북구가 민선 7기부터 역점 추진한 권역별 대규모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일환이다.

북구는 지난 2021년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부지를 확보했다. 또 국무조정실 주관 생활SOC복

합화 공모에 신청·선정돼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착공으로 북구는 총 사업비 133억4000만 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 센터는 연면적 417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센터에는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교사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하에는 주거지 주차장이 마련됐다. /주성호 기자

서구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선정

평생교육사 인물상에 서구청 임형길 주무관



서구는 지난 26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AWARD) 공모전'에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소속 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189개 도시)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지난 18일 '좋은 정책상' 48개 사업을 시상한데 이어 26일 'TOP 15개'를 별도로 선정했다.

서구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식물도감집을 제작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생태해설사로 양성해 평생학습형 일자리와 연계하는 '우리마을 식물도감 만들기' 사업으로 광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좋은 정책상 TOP 15'에 선정됐다.

또 평생교육사 인물상으로 서구청 교육도서관과 임형길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형안 기자

새 교과서 집필기준에 '5·18' 포함 "당연한 일"

이정선 교육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역사과 교과서 집필기준에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된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7일, 역사과 교과서의 경우 편찬준거 내 편찬상 유의점 속에 학습요소를 만들어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제주 4·3,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주춧돌로서 미래세대에 반드시 전승해

야 하는 시대의 정신"이라며 "더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도 수록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가 올바른 민주화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4일 '민주화교육 더이상 약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1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장관에게 5·18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 반영될 것을 약속받은 바 있다. /김도기 기자

'아파트 회계업무감사에 변호사 도입' 찬반 여론

관리사무소 "사적자치 침해·관리비 인상"

일부 입주민 "회계정보 공개 찬성 여론 수렴해야"

'변호사에 의한 공동주택 외부업무 감사 제도'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대상 법안 반대 성명을 받고 있다. 입주민들은 사적자치 침해와 관리비 인상이 우려된다는 취지에 공감해 성명에 참여하는 한편, 일부는 반대 여론 형성에 앞서 다양한 의견 수렴부터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일 변호사의 법률 감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임한 변호사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 주체

의 관리비 산정을 비롯한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을 감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세부 감사 내역은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적정성 ▲공사, 용역계약 등 관리주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는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관리업무 담당 인력 구성과 관리 적정성 등이다.

이같은 내용에 지역 일부 아파트에서 법개정 반대 여론을 모으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는 지난 15일부터 입주민들을 상대로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곳 아파트 관리사무

소는 반대 성명을 통해 관리비 인상과 사적자치 침해를 우려했다.

매년 외부 회계감사와 지자체 업무감사, 자체 내부감사 등 성격이 비슷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를 고용한 감사가 추가될 경우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1990년 도입된 국가자격인 주택관리사(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를 통한 전문 관리 제도를 배척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적 자치의 과도한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곳 아파트의 서명 운동에는 지난 27일 기준 전체 입주 480여 세대 중 200여 세대가 참여했다. 이곳뿐만 아니라 지역 수어 개 아파트에서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입주민들은 일방적인 반대 여론 모집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입주민 김모(62)씨는 "관리비 인상 주장 설화에 앞서 주민들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볼 수 있거나 감시할 수 있도록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입주민 최모(55·여)씨도 "현행 우선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동별 계산관에 관리비 항목을 공개해야하지만 이곳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반대 서명 모집보다 주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곳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매년 1000만 원대에 이르는 비용이 외부회계감사에 지출되고 있다. 고급 인력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로 관리비가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대표와 주민들을 모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전남대병원, 새 병원 예비타당성 대응 전담 기구 발족

교수단장에 윤경철 기획조정실장 선임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 추진 과정 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운영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6일 광주 동구 학동 본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에

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단' 발족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안영근 병원장은 발족식에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추진교수단을 임명했다.

교수단은 앞으로 진행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해 경제적(B/C),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또 각 부서별 팀장급으로 구성된 12명의 실무지원단과 진료·조직 및 인력·자금조달·진료계획 등을 검토한다.

교수단장으로는 윤경철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발족식 후에는 경기도 시흥에 개원을 앞둔 배곧서울대병원 건립단의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배곧서울대병원은 지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오는 2027년 800병상 규모로 개원을 앞두고 있다. /김도기 기자

전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해 일선 학교의 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 방향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은 일반계 고교 교원 중 희망자 68명으로 구성됐다. 교육과정 지원팀과 진로학업설계 지원팀, 수업 및 평가 지원팀, 학교문화 조성 지원팀으로 나누어 연말까지 운영한다.

지원단은 이 기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설명회를 비롯해 워크숍,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해 설명한다.

또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자료 개발·보급 등의 활동도 펼친다.

지원단은 학교 규정과 체제 정비,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수강신청 프로그램 운영,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수업 및 평가 내실화 등 단위학교 학점제 운영 지원도 마련한다.

광산구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3억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27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리 인상 등으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중 계약 물건 소재지

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경우다.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기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매,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